한형조 무문관 탐방 ⑩50

마조의 딱지돈 ①

밝은 태양아래 뭘 찾아 나서나

'마음이 부처' 충분히 이해하면 그가 곧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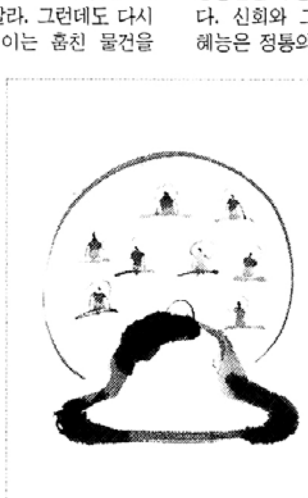
*대매(大梅)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마조(馬祖)가 대답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나 혜개가 말한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부처의 옷을 입고, 부처의 밥을 먹으며, 부처의 말을 하고 부처의 행동을 하리니 그가 곧 부처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매는 여러 사람을 이끌어 저울눈금을 잘못 읽게 했다. 어찌 알았으리. 부처를 말했다면 사흘동안 입을 씻어야 하는 것을. 진정한 대장부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따위의 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고 도망간다."

*송하여 가로되, "푸른 하늘 아래 밝은 태양. 절대 뭘 찾아 나서지 말라. 그런데도 다시 부처가 무어냐고 묻는가. 이는 훔친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

卽心卽佛:

馬祖, 因大梅問, 如何是佛. 祖云, 卽心卽佛. 無門曰, 若能直下領略得去, 著佛依喫佛飯, 說佛話行佛行, 卽是佛也. 雖然如是, 大梅引多少人, 錯認定盤星. 爭知道說箇佛字, 三日漱口. 若是箇漢, 見說卽心是佛, 掩耳便走. 頌曰, 靑天白日, 切忌尋覓. 更問如何, 抱贓叫屈.



그림·이준석

혜능에게는 뛰어난 제자 다섯이 있었다.

1) 남양혜충(南陽慧忠 677~775): 혜능의 법을 얻은 다음 등주(鄧州)의 백애산(白崖山)에서 띠집을 짓고 40년을 정진하며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 황제 숙종(肅宗)이 소문을 듣고 그를 수도로 청하자 궁궐 근처에 머물며 다음 대종(代宗)에 이르기까지 15년간 선의 진리를 폈다. 그래서 국사로 불린다. 영광은 컸으되 후계가 없어 고적했다. '늘그막에 외롭고 고적한' 나머지, 덜 익은 알을 쪼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앞의 제 23강을 기억할 것이다. 국사가 시자를 세 번 부르자, 시자가 세 번 대답하는 것을.

2)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 절강 영가 사람. 어려서부터 경(經)과 논(論)에 밝았다. 천태에 정통하고 유마와 반야로 눈을 떴다.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경지를 알아보고 싶어 혜능을 찾았다. 첫마디에 혜능의 인가를 받았다. 곧 물러나려 하자 혜능이 물었다. "어찌 이리 서두르는가." "본래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서두르고 말고가 있습니까." "그런 줄은 누가 아는가." "스님께서 분별을 내실 뿐입니다." "그대가 생사 없는 뜻을 매우 잘 아는구나." "생사 없음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다는 것은 누가 확인하는고." "분별 그 자체에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감탄한 혜능의 권유로 하루 쉬어감으로써 일숙각(一宿覺)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의 저작 가운데 진리의 세계를 노래로 읊은 〈증도가(證道歌)〉와, 선의 기획과 구상을 간략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조직한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이 있다. 이 사람에게도 후계가 없다.

3) 하택신회(荷澤神會 670~758): 이 인물에 대해서는 32강 이하 "육조의 의발"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본래 신수의 제자였다가 신수가 무후의 조정에 불려가자 조계의 혜능을 찾아갔다. 732년 낙양 근처 활대(滑臺)의 개운사(開雲寺)에서 열린 무차대회(無遮大會)에서 신수의 북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선의 남종 정통론을 주장하면서 사상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신회와 그 일파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혜능은 정통의 6조로 끌어올려 졌고, 이후 선은 남종이 주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신회 자신은 혜능의 진정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물론, 그의 후계도 적막했다. 그리하여 남종선의 계승은 다음 두 사람에게 맡겨졌다.

4) 청원행사(靑原行思 ?~740): 생애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과묵한 성격으로 "아직 사성제(四聖諦)도 공부하지 못했다"고 하여 혜능을 감동시켰다. 나중 청원산에서 가르침을 폈는데, 제자가 오직 석두희천(石頭希遷 700~790) 하나였다. 그래도 그는 "뿔난 동물이야 많겠지만 기린 하나면 족하다(衆角雖多, 一麟足矣)"고 흡족해했다. 과연 그랬다. 석두희천은 수많은 선장들을 길러냈다. 저번의 덕산을 기억할 것이다. 점심때도 아니 되었는데 밥그릇을 들고 어슬렁거리다가 지청구를 먹는 일하며(19강), 금강경주석을 지고 거들먹대다가 떡파는 노파에게 정수리를 맞고, 용담의 촛불로 눈을 뜨는 것을(45~48강). 선의 오대 문파 가운데 운문(雲門), 법안(法眼), 조동(曹洞)이 그로부터 뻗어내렸다.

5) 남악회양(南嶽懷讓 677~744): 열 다섯의 나이로 율종계통에 출가하여 스무살에 계를 받았다. 홀로 길을 닦다가 숭산의 혜안(慧安)을 찾아갔고, 혜안은 그를 다시 혜능에게로 보냈다.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물건인 듯이 얘기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說似一物卽不中)." "닦거나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있지만,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더럽힐 수 없는 것이 여러 부처가 지키던 바다. 너도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회양은 오랫동안 육조를 모시다가 남악에서 선풍을 떨쳤다. 그에게도 제자는 많지 않다. 다만 '천하를 주름잡는 말 한 마리'를 키웠을 뿐이다. 오늘 살펴볼 마조가 그 사람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잭·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⑩

정어③

부처님은 진실을 말하도록 가르쳤지만, 우리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일까? 정어(正語)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두려운 것이 있다면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타인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마도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추방됐다는 감정을 가질 것이다. 사회인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배가 암초에 부딪쳐 좌초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원초적 두려움을 나타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진실은 바로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애착, 두려움, 폭력 등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을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서 나타내기를 꺼린다.

포장된 감정과 여과된 생각이 섞이지 않은 감정들을 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같은 감정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들키지 않게 감춘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감정들을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감정들은 오해의 씨앗이며 전쟁의 불씨가 된다. 오해와 전쟁은 우리가 내면에 숨기고 있는 폭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연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해와 전쟁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표현하고 놓아주어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

애착·두려움·고독 등 내면의 어두운 감정이 진실한 말 가로막아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알아야 한다. 마음의 그림자란 인간 내면에 있는 어둠이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선행을 행하면 특별한 순간에 보상받지만, 위선은 협잡꾼, 불량자, 아첨꾼들의 마지막 탄원일 뿐이다"고 말했다.

선행은 먼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선행을 베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움직임과 마음 간의 연결상태(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사로운 견해를 개입시키지 않고, 단지 그 상태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대개 마음의 말, 진정 필요한 어떤 말을 하지 못한다. 진실한 말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단지 마음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 단계를 위해 잠깐 멈춰선 것일 뿐이다.

우리가 마음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보다는 그것(두려움)의 주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다. 무엇이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가?

우리는 옛기억을 더듬을 때 대부분 기분이 유쾌했던 일을 생각해 낸다. 또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했다고 평가한다. 분명 그 순간은 우리가 마음에 담겨진 삶의 도리를 그대로 표현했던 순간일 것이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팔정도의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수행하며 세 속의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다. 우리가 내면의 혼동스러운 대화를 멈출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춰진 마음을 보고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에서 끝없이 이야기한다. 그렇게 많은 말들을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고독이다. 또 그것은 지루함, 두려움 등이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을 방해한다. 이 감정들은 공(空)할 뿐이다.

만약 우리가 정어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비로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정어의 실천으로 말이다. '깨달음'의 의미는 우리가 하는 일, 진실한 말 등에 눈을 뜬 상태이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계속 보고 들으며, 마음과 함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길'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⑮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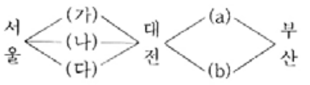
불교와 수학 ㊿54

결합과 인연

김 용 운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보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이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것은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길 (가) 하나에 대해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씩 있다.

이 갯수는 서울에서 대전에 가는 다른 방법 (나), (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가), (나), (다), 3가지에 대해서 각각 (a), (b) 두 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3×2'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A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m개, 그리고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n개 있을 때, A와 B가 합해질 때 취하는 선택 방법은 m×n가지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유전자가 한다. 말할 때는 우선 유전자가 작동한다. 유전자가 작동하여 언어에 관한 정보를 뇌에서 뽑아 내어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걷는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유전자에 관한 매우 흥미있는 사실은 '유전자의 구조와 원리는 모든 생물에 관해서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곰팡이나 한낱 대장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인간의 것과 같다. 이 사실은 곧 모든 생물이 같은 생명의 씨에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생물의 시작은 세포이지만, 그 움직임은 유전자의 한결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의 기본 원리가 같은 것이므로 모든 생물은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모든 생물 유전자 구조 공통점 조합상태 따라 다양한 種 발생 불교의 연기론 조합설과 같아

'만물제동(萬物齊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과학 차원에서도 진리인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비록 구조와 원리가 같다고 해도 그 조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장균과 인간의 유전자는 같다. 그러나 그 조합이 달라짐으로써 전혀 다른 종이 된 것이다. 조합이라는 것을 불교적으로 말하면 곧 '연기'이다.

연기란 여러 요소가 서로 얽혀 있는 현상을 말한다. 한 쌍의 부부의 만남을 설명할 때 '연이 있어서'라고 한다.

이때 두 사람의 연(가능성)이 잘 결합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 선택 하나 하나가 연이 되어 열매를 맺는다. 성인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 수는 각각 70조개 정도로 이들이 합해져서 생기는 연기는 70조 곱하기 70조, 따라서 약 4900조 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70조 개의 유전자를 갖는 또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다.

익살쟁이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어느 미모의 여배우로부터 청혼을 받은 적이 있었다.

"우리 결혼합시다. 당신의 명석한 머리와 나의 외모를 닮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쇼의 대답은 "나의 못생긴 얼굴과 당신의 나쁜 머리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정말 끔찍할거요"였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으나 이 대화는 연기의 수에 관한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 쌍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의 유전자의 결합 가능한 수에서 자신의 유전자 70조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유전자만 생각해서도 한 사람의 탄생은 천문학적인 연기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그만큼의 희귀한 연기의 결과이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나는 것은 과연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신비스러운 일은 태어나는 아이가 부모와 엉뚱할 정도로 다르지는 않다는 것이다.

연기에 신비스러운 자기조직의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비행기 엔진의 부품은 약 만개 정도가 된다. 이들 만개의 부품은 설계도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그러나 인간의 유전자는 환경과 마음의 결합으로 절묘한 연기의 열매를 형성하며 자기조직을 실현시킨다.

불교 철학에서는 만사가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기의 결과는 일정한 조화가 엿보인다. 부처님의 뜻이라고나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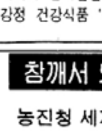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 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